

## 미국發 ‘금융 패닉’ 지역 경제 비상

### 환율 1200 돌파... 실물경제 ‘공공’ 원자재 비중 높은 中企 경영 압박

미국발 금융 불안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5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6·11면> 특히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최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여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1,20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달러당 18.20원 급등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1,207.00원)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미국 의회의 구제금융안 부결 여파로 장 초반 1,230원대로 폭등하는 등 이를 연속 ‘패닉(공황)’ 상태를 보였다. 외환당국은 이날 구두 개입에 이어 달러화 매도개입을 통해 환율 급등을 제한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주식시장도 요동쳤으나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30포인트(0.57%) 떨어진 1,448.0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로 낙폭을 줄였을 뿐, 장 초반 미국발 악재에 1,376.72선까지 밀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은 광주·전남의 경제는 물론, 국내 실물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는 등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달러 결제수입이 높은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값 급등의 여파로 발을 구르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도 공공 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중 전국의 공공업생산은 지난해 8월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지난해 9월(-3.1%)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산업활동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각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크게 악화됐다. 8월 들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7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 투입”

### 정부 긴급 대책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되고, 기업들이 하루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필요할 경우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이 투입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승수 국무총

리 주재로 긴급금융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주식 공매도로 주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

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한도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을 통한 달러를 투입, 환율 폭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해경 4명, 박 경위 사망 이틀 전 中 선원 20명에 집단 구타 당해

### 불법조업 체포 中 선장과 맞교환

목포해양경찰서 3003함 소속 박경조(48) 경위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박 경위가 탔던 3003함 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갑판에 쇠파이프와 동등으로 집단 구타 당해 중상을 입은 후 가까스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구나 해경은 여류당할 경찰을 중국인 선장과 맞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영해에서 해양 주권을 유린당한

것을 물론, 범죄집단과 협상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관련기사 7면> 지난달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3003함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목포해경 3003 함 소속 김경수 순경, 김병선 순경, 이영철

경사 등 경찰관 4명이 무려가 선박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배 위에 올라탔다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둔기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검문 검색이 시작되는 순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접근, 선원 20여명이 올라와 1시간여 동안 김 순경 등에게 쇠파이프와 동등들을 마구 휘둘렀다는 것.

해경은 경찰관들이 위험에 처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질’로 잡고 있던 중국 어선 선장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고, 결국 이 선장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여류된 경찰관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배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경호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울돌목 거북배 ‘독도 수호’ 출정



거북선 모습의 유람선인 ‘울돌목 거북배’가 지난달 30일 오후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도동항에서 열린 ‘독도출정식’에서 명량(울돌목)대첩 현장인 해남 주민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거북배는 1일 새벽 독도를 향해 출항한다. /울릉도=위정량기자 jwi@kwangju.co.kr

### 전남도민·강강술래단 등 170명 태워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백이 담긴 거북선 형상의 유람선 ‘울돌목 거북배’가 1일 독도 수호를 위한 항해에 나선다.

<관련기사 9·20면> 총 길이 49m, 폭 10m의 368t급 ‘거북배’는 1일 새벽 전남도민과 강강술래단 등 170명을 태우고 독도를 향한 닻을 올린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호국정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항해다.

‘거북배’는 당초 지난달 30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행사가 하루 연기됐다. ‘거북배’는 1일 오전 독도에 접안한 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순국한 조선 수군의 영혼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진도 울돌목 앞 바닷물과 독도 바닷물을 합하는 합수식 행사와 해남 강강술래 공연, 진도 북춤 공연, 해양소년단 독도지킴이 결의

식,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출정식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남도 공연팀은 거북배 도착에 맞춰 지난달 30일 경북 울릉도 도동항 공연장에서 1천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강강술래 공연 및 진도 북춤 공연 등을 선보였다.

한편, ‘거북배’는 전남도가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이다. /울릉도=이종형 기자 glee@

## ‘적합’ 판정 과자서 멜라민 검출

### 검사 결과 4일만에 뒤집혀 불안감 증폭

당초 적합 판정을 받은 유명 다국적 기업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는 가 하면 개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4일전 ‘적합’ 제품으로 발표했던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반격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식약청은 다국적 기업 중국 나비스코푸드가 제조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년 3월 23일)와 다량데이브라이트푸드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년 6월 24일)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불과 4일전인 26일 발표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는

123개 ‘적합’ 품목 명단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유명 다국적 기업이 제조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식품은 6개 품목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30일 정음시 E사료업체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개 사육장에 공급한 사료 일부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E업체의 개 사료는 전국사료협회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외부 연구소에 의뢰,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멜라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이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은...  
 1. 최첨단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 최상의 가격과 최상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3.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4.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5.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6.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7.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8.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0.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